

셋이 함께 출근하는 쿠팡 어린이집, '쿠키즈' 탐방!

2022. 7. 8.



쿠팡 쿠키즈 위례점

“처음에 괜찮은 키즈카페에 온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 더욱 안심이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 성향을 배려한 보육을 해 주셔서 부모로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깨끗한 시설은 물론 특별활동, 실외활동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매우 만족합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는 쿠키즈 위례점이 있습니다. 쿠키즈는 쿠팡 어린이집. 쿠팡과 키즈(kids)의 출임말이죠. 이곳에 4살 아이를 등원시키는 쿠팡친구 이동혁(36) 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회사가 아이를 봐주니까 안심하고 배송업무에 몰입할 수 있어요. 곧 저희 둘째가 태어나는데 당연히 쿠팡 어린이집에 보내야죠.”

이동혁 님과 쿠키즈 위례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쿠팡은 아이를 키우는 임직원뿐 아니라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신축하 선물을 증정합니다.
- 초기 및 만삭 임신부의 건강을 위해, 급여 삭감 없이 일 2시간의 단축근무가 보장됩니다

- 남여 직원 모두에게 육아휴직 1년을 보장하고 출산 축하금 50만원을 드립니다.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은 육아휴직은 물론, 하루 3시간만 일하는 단축근로도 가능하여 육아기의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맞추며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쿠팡 쿠키즈 선릉점

“아이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고요. 가끔 내려가서 아이 얼굴도 볼 수 있어요. 쿠팡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맞벌이 부부 전건우 (DBA팀, 37) 김민정 (마켓플레이스팀, 37)님은 19달 된 딸아이를 쿠키즈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쿠팡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이제는 셋이 되어, 아이와 함께 쿠키즈가 있는 역삼동 쿠팡 오피스 ‘로켓연구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퇴근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향해 뛰어다녔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쿠팡 어린이집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좀 더 유연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쿠키즈 선생님들은 아이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어떻게 노는지 체크해서 모바일 알림장에 적어주십니다. 이전보다 업무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쿠키즈의 혜택을 하나씩 알아보까요?

- 쿠키즈 어린이집은 만 1세~ 만 5세까지의 쿠팡 임직원 자녀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놀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영어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음악, 체육 등 특별활동과 수, 한글, 영어 등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큼니다.
- 초등학교 연계수업도 운영합니다.
- 석식비와 특별활동비도 지원합니다.

쿠키즈 선릉점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쿠팡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